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4. 11. 7.(목) 11:00
(지면) 2024. 11. 8.(금) 조간

배포 2024. 11. 7.(목) 06:00

동아시아 10개국,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힘 모으다

- 11.6~8 열린 2024년 동아시아 해양회의에서 「샤먼 선언문」 채택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중국 샤먼(Xiamen)에서 열린 '2024년 동아시아 해양회의(11.6~8)'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10개국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다짐한 「샤먼 선언문」을 채택했다고 밝혔다.

‘동아시아 해양회의’는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(PEMSEA)*의 장관급 협의체로, 동아시아 해양의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역내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2003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고 있다.

* 동아시아해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'94년 설립된 지역기구로서, 동아시아 11개국 및 국제기구로 구성

개최 8회 차를 맞는 올해 회의는 중국과 PEMSEA가 공동 주최하였으며, PEMSEA 회원국*과 국제기구, 비정부기구 등 약 900여 명이 참여하여 해양 환경보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. 우리나라는 윤현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수석대표로 해양수산부, 해양환경공단, 한국해양과학기술원,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.

* 한국, 중국, 일본, 필리핀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싱가포르, 라오스, 베트남, 동티모르(북한 불참)

특히, 6일에 열린 장관 포럼에서 동아시아 10개국 수석대표들은 건강한 동아시아 해양을 위해 현시점에서 필요한 요소로 ▲혁신적인 기술, ▲기금 규모 확대와 투자, ▲민관 파트너십 등을 강조했다. 또한, 각국의 국내외적 노력을 통해 ▲효과적인 거버넌스, ▲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해양, ▲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회복력 있는 청색 경제, ▲국민의 건강 등을 위한 실행과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「샤먼 선언문」을 채택하였다.

아울러, 우리나라는 수석대표 연설에서 해양수산분야 기술 발전을 위해 한국이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*을 공유하고, 앞으로도 신기술을 통한 동아시아 해양 보전에 주도적 역할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하였다.

* (데이터 수집·분석) 천리안 2B 위성 활용 / (인력양성) 해양수산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전략 / (제도규제 정비) 친환경 선박자율운항선박 등 / (민관협력) 친환경부표와 해양쓰레기 추적 시스템 개발 등

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“이번 회의에서의 중요한 성과인 「샤먼 선언문」은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라며, “동 선언문이 해양수산부가 적극 추진 중인 해양환경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는 만큼 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여 선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기후환경국제전략팀	책임자	팀 장	서은정 (044-200-6267)
		담당자	사무관	황지원 (044-200-6273)



참고1

동아시아 해양회의 개요

□ 회의 개요

- (회의명) 동아시아 해양회의(The East Asian Seas Congress, EAS Congress)
- (주최) 주최국 정부, 개최 도시, PEMSEA 공동 주최
 - * PEMSEA 11개 회원국이 3년마다 번갈아가며 개최
- (목적) 동아시아해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
- (구성) 장관포럼, PEMSEA 지방정부 네트워크 포럼, 전시, 부대행사 등
- (개최 주기) '03년부터 3년 주기 개최

□ 개최 경과

1회 (2003년)	• 일시/장소: '03. 12. 8. ~ 12. /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• 아국대표: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 • 주요성과: 8개 워크숍 개최, 동아시아해역 지속가능 발전전략 승인, 푸트라자야 선언(Putrajaya Declaration) 채택
2회 (2006년)	• 일시/장소: '06. 12. 12. ~ 16. / 중국 하이코우 • 아국대표: 이은 해양수산부 차관 • 주요성과: 31개 워크숍 개최, SDS-SEA 실행을 위한 하이코우 파트너십 협정(Haikow Partnership Agreement) 체결
3회 (2009년)	• 일시/장소: '09. 11. 23. ~ 27. / 필리핀 마닐라 • 아국대표: 최장현 국토해양부 차관 • 주요성과: 30개 워크숍 개최, PEMSEA 국제 법인격 승인, 마닐라 선언(Manila Declaration) 채택
4회 (2012년) * 아국개최	• 일시/장소: '12. 7. 9. ~ 13. / 한국 창원 • 아국대표: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• 주요성과: 17개 워크숍 개최, 동아시아해 블루이코노미 구축을 위한 창원선언(Changwon Declaration) 채택
5회 (2015년)	• 일시/장소: '15. 11. 16. ~ 21. / 베트남 다낭 • 아국대표: 지희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• 주요성과: 10개 워크숍 개최, SDS 개정본 및 Post-2015 PEMSEA 전략목표 승인에 관한 다낭선언문(Da Nang Compact) 채택
6회 (2018년)	• 일시/장소: '18. 11. 27. ~ 30. / 필리핀 일로일로 • 아국대표: 박준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• 주요성과: 28개 워크숍 개최, 동아시아 해양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도모에 관한 일로일로 장관선언문(Iloilo Ministerial Declaration) 채택
7회 (2021년) * 화상	• 일시/장소: '21. 12. 1. ~ 2. / 화상회의(캄보디아) • 아국대표: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• 주요성과: 동아시아해역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도모에 관한 프레아시 아누크 장관선언문(Preah Sihanouk Ministerial Declaration) 채택

* 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

□ 개 요

- 목적: 동아시아해역의 생태계 보호와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
- 설립: GEF(지구환경기금), UNDP(유엔개발계획) 및 IMO(국제해사기구)의 지역프로그램 '동아시아해 해양오염 예방 및 관리' 사업으로 시작('94)
- 회원국·기관: 11개국 및 22개 비정부 기구로 구성*
 - * 회원국: 韓, 北, 中, 日, 캄보디아, 필리핀, 싱가포르, 베트남, 인니, 라오스, 동티모르
- 사무국 (PRF: PEMSEA Resource Facility, 필리핀 마닐라 소재)

□ 회의체

- 총회(PC: PEMSEA Partnership Council) : PEMSEA 최고 의사 결정체
- 집행위원회(EC: Executive Committee) : 총회 상정 안건 사전 검토
- 동아시아 해양회의(East Asian Sea Congress) : 장관급(매 3년마다 개최)
- PEMSEA 지방정부간 네트워크(PNLG*)

* PEMSEA Network of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le coastal development

□ 주요활동

- 지속가능한 연안·해양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 지원
- 연안통합관리에 대한 시범사업 시행 및 재정적·기술적 지원
- 환경 위험평가 및 관리 대상 환경개선 지원

* 한국 마산만, 중국 발해만, 필리핀 마닐라만, 태국 타이만 등 9개

- PEMSEA 교육센터 네트워크를 통한 회원국 교육/훈련 및 워크숍 개최